

-을/를 마다하지 않고

~을 마다하지 않고; 무엇도 거절하지 않고

기꺼이 나선 태도를 높이 평가하는 표현입니다. 마다하다는 '거절하다'라는 뜻이므로, 이중 부정으로 그 사람이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았음을 말하며, 감탄하는 어감이 있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받침 있음	을 마다하지 않고	긋은일을 마다하지 않고
받침 없음	를 마다하지 않고	수고를 마다하지 않고
명사 앞	-을/를 마다하지 않는	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자세
명사 조건	수고나 노력	수고, 긋은일, 먼 길
평가	칭찬	칭찬하는 표현
비장한 표현	-을/를 불사하고	파업을 불사하고

■ 언제 쓰나요

조사는 일반 규칙을 따릅니다. 받침이 있는 명사에는 을, 받침이 없는 명사에는 를이 붙습니다. 마다하다는 한 단어로 붙여 씁니다.

명사는 기꺼이 떠맡은 수고를 나타냅니다: 수고, 긋은일, 희생, 먼 길, 위험. 대부분의 사람이 거절할 만한 것들입니다.

평가는 칭찬: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도왔다.입니다. 칭찬하는 표현이므로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.

대조 표현 -을/를 불사하고(는) 극단적인 조치를 비장하게 감수하는 반면, 이 표현은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. 형태는 같지만 온도는 정반대입니다.

■ 예문

- 1 그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도왔습니다.
- 2 긋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다.
- 3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주셨다.
- 4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자세가 인상적이었다.
- 5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하나 직접 만들었다.
- 6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.

■ 비교

-을/를 불사하고
꼭 구별해야 할 짝입니다. 불사하고는 극단적인 조치를 감수하며 비장한 어감이고, 마다하지 않고는 수고를 받아들이며 칭찬하는 어감입니다.
충돌을 불사하고 밀어붙였다. (충돌을 각오함) /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도왔다. (수고를 아끼지 않음)

-을/를 무릅쓰고
둘 다 칭찬하는 표현입니다. 무릅쓰고는 위험에 맞서는 것이고, 마다하지 않고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던 수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.
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었다. (위험에 맞섬) /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. (수고를 거절하지 않음)

-아/어 내다
내다는 힘든 일을 끝까지 해낸 것을 평가하고, 마다하지 않고는 애초에 그 일을 맡겠다고 나선 것을 평가합니다.
끝까지 견뎌 냈다. (끝까지 해냄) /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. (기꺼이 맡음)

■ 주의

- ✗ 좋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받았다.
- 긋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맡았다.
명사는 보통 거절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. 좋은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칭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.
- ✗ 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니다.
-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.
칭찬하는 표현이므로 자기 자신에게 쓰면 자화자찬처럼 들립니다.
- ✗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세가 인상적이었다.
-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자세가 인상적이었다.
뒤의 명사를 꾸밀 때는 마다하지 않는을 씁니다.